

가나안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우리의 안식일의 안식이신 그리스도

6/3 월요일

아침의 누림

창 1:26

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창 2:2

2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창 1:27-28

27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28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살아 있는 온갖 것을 통치하여라.”

창 2:3

3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히 2:6-8

6 어떤 사람이 성경 어딘가에서 엄숙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7 주님은 그분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으며, 그분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8 만물을 그분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분께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 20:8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라.

안식일의 안식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이 처음 언급된 곳을 살펴보아야 한다. 성경에서 안식일이 처음 언급된 것은 사람이 창조된 이후이다(창 2:2-3).

만일 사람이 여섯째 날에 창조되지 않았다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일이 완성되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만족하셨고 안식하실 수 있었다.

둘째 날을 제외하고, 창조가 진행된 모든 날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일을 보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여섯째 날 끝 무렵에 사람이 창조된 후에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매우 좋다.”(창 1:31)라고 말씀하셨다. “매우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께서 만족하셨음을 의미한다. 여섯째 날 끝에 하나님은 그분을 표현하도록 그분의 형상을 지니고, 또한 그분을 대표하는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을 보시고 만족하시며 “매우 좋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땅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사람을 얻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만족되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얻으시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8, 215-21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성경의 날짜 계산법에 의하면,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다. 나는 사람이 여섯째 날 늦게 만들어졌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부터 사람이 나왔을 때, 그는 즉시 일곱째 날로 들어갔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는 안식의 날이었다(창 2:2-3). 하나님의 일곱째 날은 사람의 첫째 날이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누림을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창조된 후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갔다. ... 여러분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 여러분이 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어리석은 자녀야, 나에게는 네가 해 줄 일이 없단다. 그 대신 나에게는 네가 누릴 큰 풍성이 있단다. 와서 나의 안식에 참여하여라.”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했다.

나는 많은 시간을 들여 사람이 창조된 후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내가 발견한 것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먹고 안식했다는 것이다. ...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면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는 것’에 대해 잊어버리라. 와서 예수님을 먹으라. 와서 만족을 누리라. 와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라.

1936년에 나는 주님의 일에 매우 큰 부담을 갖고 중국 북부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 일은 힘들었고, 시험과 환경은 어려웠다. 나는 종종 자전거를 타고 교외로 나가서는, 자전거를 팽개치고 땅바닥에 엎어져 부르짖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괴로웠고 시험 가운데 있었다. 어느 날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너는 사람의 첫째 날이 하나님의 일곱째 날인 것을 아느냐? 하나님의 일곱째 날은 사람의 첫째 날이다. 왜 너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느냐? 어리석은 자녀야, 내려놓아라. 네 일을 멀리 던져 버려라. 다만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나의 안식에 참여하여라.” 그 주일 아침에 나는 하나님의 일곱째 날이 사람의 첫째 날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나의 첫째 날입니다. 여러 달 동안 나는 매우 힘겹게 수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내 일을 던져 버립니다. 나는 더 이상 수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일곱째 날은 나의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 여러분도 만족한다. 언제나 여러분이 만족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계신다는 증거이다. 그분은 만족하셨다.

일하지 말라. 단 한 가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표에 도달하시도록 하는 것만을 주의하라. ... 하나님의 목표는 그분의 형상이 표현되고 그분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목표에 이미 도달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나는 만족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도 “하나님, 저도 만족합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한다.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140-14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6/4 화요일

아침의 누림

신 12:9

9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유업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히 4:8-9

8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9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의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계 20:1-4, 6

1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이 있었습니다.

2 그 천사는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을 잡아 결박하여서, 천 년 동안

3 무저갱에 던져 넣고 가둔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 년이 차기까지는 더 이상 민족들을 미혹시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후에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4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인 사람들의 혼들이 있고, 또 짐승이나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6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죽음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생활 안에 있고, 교회생활은 자라는 안식이며 우리를 천년왕국이라는 수확된 안식 안으로 인도하고 있다. ... 최종적인 안식일의 안식은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 그곳에는 새 땅이 있을 것이며, 새 땅에는 변화된 사람들을 살아 있는 재료로 사용하여 건축된 성이 있을 것이다. 살아 있는 구성체인 새 예루살렘은 영원 미래에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일 것이다. ...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그분의 보좌와 권위가 있을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최종적이며 영원한 안식일 것인데, 그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표현되시고 대표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일의 최종 완결일 것이며, 우리

모두는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1, 24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가나안 좋은 땅에 들어갔던 그날부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싸웠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신명기 12 장 9 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을 안식이라고 부르셨는가? ... 그 땅이 안식이었던 이유는 그곳에 성전이 건축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에 성전이 있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표현과 대표를 가지실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표현되시고 대표되실 때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만족이 있으며, 그것이 참된 안식이다.

히브리서 4 장 9 절에서 안식일의 안식은 가나안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우리의 안식이신 그리스도이다(신 12:9, 히 4:8). 그리스도는 세 단계로 우리에게 안식이 되신다. 교회 시대에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표현하시고 대표하시고 만족하게 하셨으며,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면서 하늘들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에게 안식이 되신다(마 11:28-29). 천년왕국에서, 사탄이 이 땅에서 제거된 후에(계 20:1-3)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이기는 성도들에 의해 표현되시고 대표되시며 만족을 얻으실 것이다. 그럴 때 왕국과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는 이기는 성도들에게 더욱 충만한 안식이 되실

것이며, 이기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들이 되어(계 20:4, 6) 그리스도의 안식에 동참하여 누릴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포함한 모든 원수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 후(고전 15:24-27),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구속받은 모든 이들에 의해 충만히 표현되시고 대표되시며 만족을 얻으실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분으로서 영광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백성에게 영원토록 가장 충만한 안식이 되실 것이다. ... 히브리서 4 장 9 절에 언급된 안식일의 안식은 좋은 땅 가나안의 안식으로 예표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처음 두 단계만을 다룬다. 이것은 세 번째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다. 처음 두 단계의 안식은 그분을 부지런히 추구하는 사람들, 곧 구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충만하게 누려 이기는 이들이 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다. 하지만 세 번째 단계의 안식은 상이 아니라, 구속받은 모든 이들에게 할당되는 완전한 몫이다. ... 그리스도께서 천 년 동안 온 땅을 그분의 왕국으로 만드시어(계 11:15) 그분의 유업으로 소유하시는 것(시 2:8, 히 2:5-6)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두 번째 단계에서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안식으로 추구하고 누리면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기는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계 20:4, 6, 딤후

2:12).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땅을 상속받을 것인데(마 5:5, 시 37:11), 어떤 이들은 열 도시를 다스리는 권위를 받고, 어떤 이들은 다섯 도시를 다스리는 권위를 받아(눅 19:17, 19),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마 25:21, 23). 이것은 왕국의 안식으로서, 좋은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안식으로 예표되었다. 좋은 땅의 안식은 구속받고 이집트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자손 모두의 목표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차 올 왕국의 안식은 구속받고 세상에서 구원받은 신약의 믿는 이들의 목표이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다.(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8, 218-22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8, 20-27

6/5 수요일

아침의 누림

마 11:28-30

28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30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요 4:34

3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요 5:30

30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므로 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요 6:38

38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 26:39, 42

39 조금 더 나아가시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셔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42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엡 4:20-21

20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21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는 지금 교회생활 안에 있고, 교회생활은 자라는 안식이며 우리를 천년왕국이라는 수확된 안식 안으로 인도하고 있다. ... 최종적인 안식일의 안식은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 그곳에는 새 땅이 있을 것이며, 새 땅에는 변화된 사람들을 살아 있는 재료로 사용하여 건축된 성이 있을 것이다. 살아 있는 구성체인 새 예루살렘은 영원 미래에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일 것이다. ...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그분의 보좌와 권위가 있을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최종적이며 영원한 안식일 것인데, 그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표현되시고 대표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일의 최종 완결일 것이며, 우리 모두는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1, 24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가나안 좋은 땅에 들어갔던 그날부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싸웠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신명기 12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을 안식이라고 부르셨는가? ... 그 땅이 안식이었던 이유는 그곳에 성전이 건축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에 성전이 있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표현과 대표를 가지실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표현되시고 대표되실 때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만족이 있으며, 그것이 참된 안식이다.

히브리서 4 장 9 절에서 안식일의 안식은 가나안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우리의 안식이신 그리스도이다(신 12:9, 히 4:8). 그리스도는 세 단계로 우리에게 안식이 되신다. 교회 시대에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표현하시고 대표하시고 만족하게 하셨으며,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면서 하늘들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에게 안식이 되신다(마 11:28-29). 천년왕국에서, 사탄이 이 땅에서 제거된 후에(계 20:1-3)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이기는 성도들에 의해 표현되시고 대표되시며 만족을 얻으실 것이다. 그럴 때 왕국과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는 이기는 성도들에게 더욱 충만한 안식이 되실 것이며, 이기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들이 되어(계 20:4, 6) 그리스도의 안식에 동참하여 누릴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포함한 모든 원수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 후(고전 15:24-27),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구속받은 모든 이들에 의해 충만히 표현되시고 대표되시며 만족을 얻으실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분으로서 영광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백성에게 영원토록 가장 충만한 안식이 되실 것이다. ... 히브리서 4 장 9 절에 언급된 안식일의 안식은 좋은 땅

가나안의 안식으로 예표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처음 두 단계만을 다룬다. 이것은 세 번째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다. 처음 두 단계의 안식은 그분을 부지런히 추구하는 사람들, 곧 구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충만하게 누리 이기는 이들이 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다. 하지만 세 번째 단계의 안식은 상이 아니라, 구속받은 모든 이들에게 할당되는 완전한 몫이다. ... 그리스도께서 천 년 동안 온 땅을 그분의 왕국으로 만드시어(계 11:15) 그분의 유업으로 소유하시는 것(시 2:8, 히 2:5-6)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두 번째 단계에서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안식으로 추구하고 누리면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기는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계 20:4, 6, 딤후 2:12).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땅을 상속받을 것인데(마 5:5, 시 37:11), 어떤 이들은 열 도시를 다스리는 권위를 받고, 어떤 이들은 다섯 도시를 다스리는 권위를 받아(눅 19:17, 19),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마 25:21, 23). 이것은 왕국의 안식으로서, 좋은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안식으로 예표되었다. 좋은 땅의 안식은 구속받고 이집트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자손 모두의 목표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차 올 왕국의 안식은 구속받고 세상에서 구원받은 신약의 믿는 이들의 목표이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다.(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8, 218-22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8, 20-27

6/6 목요일

아침의 누림

출 29:40-41

40 어린양 한 마리를 바칠 때에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와 짙어 짠 기름 사분의 일 힌을 섞은 것을 바치고,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을 전제물로 바쳐라.

41 어스름한 저녁에 다른 어린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바쳐라. 이것은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 곧 여호와에게 바치는 화제물이다.

빌 2:17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내가 전제물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민 15:1-10 (4-10)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 3 여호와에게 화제물을 바칠 때, 곧 특별한 서원을 하려고 혹은 자원 제물로 바치려고 혹은 정해진 명절에 바치려고 소 떼나 양 떼 가운데서

골라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가 되도록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을 바칠 때,
 4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에 기름 사분의 일 힌을 섞은
 것을 소제물로 바쳐야 한다.
 5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이
 어린양 한 마리이면 너희가 준비해야 할
 전제물은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이다.
 6 흑 숫양 한 마리이면 고운 가루 십분의 이
 에바에 기름 삼분의 일 힌을 섞은 소제물을
 준비해야 하고,
 7 포도주 삼분의 일 힌을 전제물로 바쳐서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가 되게 해야 한다.
 8 너희가 특별한 서원을 하거나 여호와에게
 화목제물을 바치려고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로
 소를 준비할 때에는,
 9 그 소와 함께 고운 가루 십분의 삼 에바에
 기름 반 힌을 섞은 소제물을 바치고,
 10 거기에다 포도주 반 힌을 전제물로 바쳐서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인 화제물이 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해 상패해지셨다. ...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상패하게 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도울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창 2:18)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성경의 예표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의 하나님은 독신자에 비유되실 수
 있다. ... 그러나 영원 미래에 그분은 아내, 곧
 어린양의 아내라 불리는 새 예루살렘을 갖게
 되실 것이다(계 21:9-10).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을 보셨을 때
 안식하시고 상패하게 되실 수 있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갈증을 해소하고 그분을 만족시키는
 상패한 음료와 같았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끝내시고 안식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분께는 그
 분의 동반자인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께 일곱째
 날은 그분께서 안식하시고 상패해지시는
 날이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동반자인 사람에게
 그가 안식하고 상패해지는 날은 첫째 날이었고,
 ... 그날은 누림의 날이었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72, 1866-186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신성한 원칙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일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누림을
 공급하신다. ...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법을 모르고 또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누리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일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법을 알지 못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심지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다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그분을 누려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법,
 즉 그분의 일에서 그분과 하나 되는 법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보여 주는 매우 좋은 예시가
 신약에서 발견된다. 사도들의 신약사역은 그들이
 오순절 날에 가졌던 누림으로 시작되었다.
 제자들은 옛새 동안 일하지 않았고 오순절 날에
 주님을 누렸다. 사실상 주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다.
 실지로 그들은 하늘에 속한 술의 누림으로
 충만했다. 제자들은 이러한 누림으로 충만해진
 다음에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이자,
 그분과의 하나 안에서 일하는 방법이다.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서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을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과 하나였다.

사람에게 안식일은 언제나 첫째 날이었다. 구약에 따르면, 안식일 곧 사람의 안식을 위한 날은 그의 첫째 날이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따르면, 사람의 안식을 위한 날인 여덟 번째 날도 첫째 날이었다. 구약의 원칙에 따르면, 사람의 안식을 위한 날은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 후에 온다. 사람은 자신의 일을 끝마친 후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 후에 안식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사람은 누린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 가운데 성취하신 것을 누린다.

아마도 아담은 그의 첫째 날에 하나님과 안식을 누린 후에 남은 육 일 동안 동산을 돌보며 일했을 것이다. 그런 다음 여덟 번째 날, 즉 또 다른 첫째 날에 그는 다시 하나님과 안식했을 것이다. 이것은 안식하는 구간과 일하는 구간이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순환이다. 하나님께 이것은 일하시고 안식하시는 문제이지만, 사람에게에는 안식하고 일하는 문제이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72, 1867-186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72

6/7 금요일

아침의 누림

히 4:12

12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찢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딤후 4:22

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전 10:6, 11

6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 것은 그들이 악한 것들을 열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악한 것들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1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시대들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롬 8:3-4, 10, 16

3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심으로써

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엡 2:22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갈 6:18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님들. 아멘.

성경에 따르면 사람은 세 부분, 곧 영, 혼, 몸으로 된 존재이다(살전 5:23). 히브리서 4장 12 절에는 관절과 골수라는 몸의 부분들과 그리고 혼과 영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1) 그들이 구출되었던 이집트, (2) 그들이 방향했던 광야, (3)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이었다. 이 세 장소에서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세 단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들, 곧 신약의 믿는 이들에 대한 예표이다. (히 4:12 각주 2)

오늘의 읽을 말씀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속받아 세상에서 구출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다가 방황하는 이들이 되었다. 우리의 방황은 항상 혼 안에서 일어난다.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누린다. 이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물질적이고 죄악스러운 것들에 속한 쾌락을 추구할 때, 우리는 이집트로 예표된 세상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혼 안에서 방황할 때, 우리는 광야에 있게 된다. 우리가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가나안에 있게 된다. ... 그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인 히브리 믿는 이들은 그들의 히브리 종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 안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혼 안에서 방황하는 것이었다. ... 관절과 골수를 쪼개려면(히 4:12) 주로 관절을 깨뜨려야 한다. 같은 원칙으로 영과 혼을 나누려면 혼이 파쇄되어야 한다. 히브리 믿는 이들의 혼, 즉 머뭇거리는 생각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의심하는 것과, 혼 자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 혼은 살아 있고 효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찢려 파쇄되어야 했다. 이것은 그들의 영과 혼을 나누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의 혼은 바로 우리의 자아이다(마 16:25, 비교 눅 9:25).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혼, 곧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마 16:24, 눅 9:23). 우리

영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이며, 하나님을 접촉하는 영적인 기관이다(요 4:24, 롬 1:9).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바로 영 안에서이다(요 3:6). 성령께서 거하시고 일하시는 것도 바로 영 안에서이며(롬 8:16),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바로 영 안에서이다(딤후 4:22, 갈 6:18). 따라서 이 책의 저자는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혼의 방황 가운데 머뭇거리지 말고, 혼을 부인하며, 천년왕국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 안으로 힘써 나아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분을 누리라고 권면했다.(히 4:12 각주 2)

우리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이고(요 4:24),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관이다(막 12:30).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담고, 체험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혼은 세 부분 곧, 생각과 의지와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영 또한 세 부분 곧, 양심과 교통과 직감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음은 혼과 영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혼의 모든 부분에다 영의 일부인 양심이 더해져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따라서 우리 마음에는 사상을 가진 생각과 의도를 가진 의지가 있다. 사상은 의도에 영향을 주며, 의도는 사상을 수행한다.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사상과 우리의 의지 안에 있는 의도를 분별할 수 있다.

앞 절들에서 저자가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과정 가운데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히브리 믿는 이들의 사상과 의도가 무엇이며, 또한 그들의 사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었다.(히 4:12 각주 3)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4 권, 하나님-사람의 생활, 12-13 장

6/8 토요일

아침의 누림

히 4:16, 2

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2 우리도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은 말씀은 말씀들 들은 그들의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엡 6:17

17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 28:12-19

12 야곱은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다.

13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곧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씨에게 주겠다.

14 너의 씨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15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16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몰랐구나.”

17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구나.”

18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19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요 1:51

51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의심할 것 없이 히브리서 4 장 16 절에 언급된
보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이다(계 4:2).
... 이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이기도
하다(계 22:1).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양, 곧
그리스도의 보좌로 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은
히브리서 4 장 12 절에 언급된 우리의 영이다.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롬
8:34) 바로 그분은 또한 지금 우리 안에(롬 8:10),
즉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엡 2:22)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딤후 4:22).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곧 하늘의 문인 벳엘에서 그리스도는 땅을
하늘과 연결시키시고, 하늘을 땅으로 이끄시는
사다리이다(창 28:12-17, 요 1:51). 오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영이 하늘의 문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사다리로서 땅에 있는 사람들인 우리를 하늘로
연결시키시고, 하늘을 우리에게로 이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영으로 돌아갈때마다,
하늘의 문을 통해 들어가서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만진다.(히 4:16 각주 2)

오늘의 읽을 말씀

히브리서 4 장 12 절의 시작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는 이 절과 그 앞의 절을
연결한다. ... 히브리서의 저자가 여기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4 장 7 절에서 그가 인용한
약속이 시편 95 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은
우리 안의 모든 것을 나누고 분별할 정도로
충분히 살아 있고 활동적이며 날카로워야 한다.
...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살아 있고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단지 인쇄된 내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만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만진 말씀이
살아 있고 활동적이며 우리의 영과 혼을 나눌
때이다. 이것은 중요한 원칙이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 히브리 형제들은 구약을 소중히
여기며 특히 시편을 소중히 여깁니다. 시편 중
하나는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절을 거듭거듭 읽었지만,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시다. 지금 나는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근거로 이 시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살아 있고 효력이
있으며 우리의 영과 혼을 나누어야 합니다.
형제님들, ... 여러분은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영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잠잠히 있을 때, 여러분의 영은 깊은 속에서
여러분에게 멈추지 말고 오늘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영 안에서 이것에 대해 매우 분명하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에서 혼으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의 혼 안에 있는 생각은 머뭇거리기 시작했고,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혼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과 영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나는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운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혼합된 것을 찢러 쪼개고, 여러분의 혼과 영을 나누며,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혼 안에서 방황하지 말고 여러분의 혼에서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 더 많이 이야기하고 주저할수록 여러분은 자신의 방황하는 생각 안에 더 갇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찢러 쪼개고, 혼과 영의 모든 혼합을 나누어야 한다. ...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을 나눌 수 있다. 우리의 혼은 파리 잡이 끈끈이처럼 찢뜩찢뜩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쉽게 우리의 혼에 들러붙는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찢러 쪼개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 필요하다. ... 오직 공흠이 넘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으로 찢으실 때, 우리는 자신의 방황하는 생각에서 구출받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이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살아 있지 않고 효력이 없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단지 인쇄된 책으로 취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살아 있는 방식으로 취해야 한다. (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5, 295-29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54 권,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7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54권,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7장

찬송: 746 (英)

6/9 주일

아침의 누림

히 3:7-19
 7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8 그분을 노여우시게 하던 것처럼, 광야에서 그분을 시험하던 날처럼,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
 9 거기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여 떠보았고, 사십 년 동안이나 나의 일을 지켜보았다.
 10 그래서 나는 그 세대에 대하여 언짢아하며 말하였다. ‘그들은 항상 마음이 빗나가서 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11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12 형제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무도 불신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13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동안에, 여러분은 매일 서로 권유하여, 여러분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14 우리가 처음에 가진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이 될 것입니다.
 15 성경에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분을 노여우시게 하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16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분을 격노하게 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17 또 하나님께서 사십 년 동안 누구를 언짢아하셨습니까? 죄를 지어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뒹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18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분의 안식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를 하셨습니까? 불순종한 그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19 우리는 그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